

머리  
5·6학년  
리  
스  
도  
근

제 3 권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기획 생명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디자인 문서선교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37

연락처 070-7121-1280 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http://www.jbch.org)(생명말씀선교회) [school.jbch.org](http://school.jbch.org)(교회학교)

# 차례

## 5,6학년 머릿돌 2025년 제3권

- 27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 ... 4 7월 6일
- 28 죄를 용서받는 제사 ... 11 7월 13일
- 29 정탐꾼들의 보고 ... 18 7월 20일
- 30 늦밤을 바라봄 ... 24 7월 27일
- 31 새 지도자 여호수아 ... 30 8월 3일
- 32 요단강을 건너감 ... 38 8월 10일
- 33 무너진 여리고 성벽 ... 46 8월 17일
- 34 아간의 범죄 ... 54 8월 24일
- 35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 60 8월 31일
- 36 도피성 ... 66 9월 7일
- 37 섬길 자를 택하라 ... 72 9월 14일
- 38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 80 9월 21일
- 39 기드온과 삼백 용사 ... 86 9월 28일

이것만은 기억해요 ... 92

# 27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25:1~9, 35:1~36:7, 40장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sup>1</sup>성소를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sup>2</sup>성막의 모양과 크기대로 지을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누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백성은 값싼 것부터 값비싼 것까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물 중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등도 있었고 <sup>3</sup>호마노와 여러 가지 보석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 성막을 짓기에 넉넉하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막을 짓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시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쓸 천에 직접 수를 놓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sup>1</sup>성소: 거룩한 장소

<sup>2</sup>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였던 이동식 성소

<sup>3</sup>호마노: 수정의 한 종류인 보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성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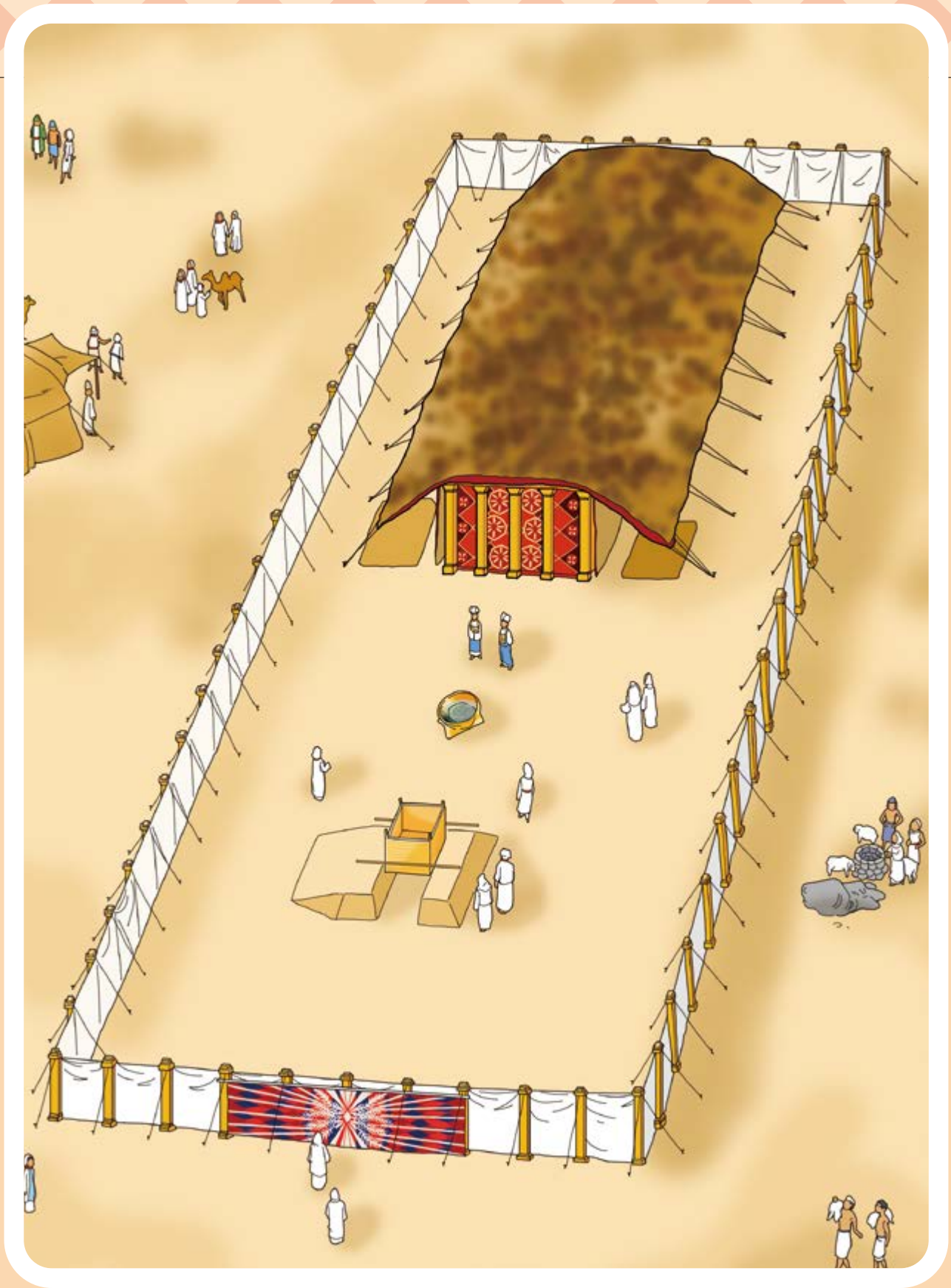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성  
경  
암  
송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7)



# 성막의 기구

번제단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양이나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그림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등대는 성막 안을 항상 밝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은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성소



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마지막으로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씩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언약궤 위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 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이름다운 자연을 주셨어요.



창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어요.



이 음식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아래에 자세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아래 그림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두를 닦았다고 용돈을 주셨어요. 작은 것이지만 헌금할래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으로나   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7)



## 예 화



### 하워드 캘리 의사의 졸업식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캘리는 그가 의과 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부모님란

선생님란